



Market Index / 25일

코스피지수 ▼	2601.54 -16.22	코스닥지수 ▼	865.12 -6.98	유가(WTI, 달러) ▲	44.91 +1.85	환율(원)	1USD 100₺	1127.39 1079.25	1088.61 1042.13	1EUR 1CNY	1346.27 176.95	1293.65 160.11
---------	-------------------	---------	-----------------	---------------	----------------	-------	--------------	--------------------	--------------------	--------------	-------------------	-------------------

결국 실패로 끝나가는 ‘렌터카 총량제’

대기업 계열사 감차 반발 운행제한 취소소송 제기 도, 잇따라 패소... 렌터카 적정 수요 분석 용역 추진

렌터카 감차를 거부하며 대기업 계열사들이 제주도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제주도가 패소했다. 렌터카 감차 정책의 적법성 문제와 함께 제주도의 수요 분석도 논란을 사고 있다. 제주도는 감차 추진 2년만에 증가하지 고려한 렌터카 적정 대수 산출 용역을 다시 벌인다.

25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지난 24일 롯데렌탈(주)과 해피네트웍스 등 대기업 계열 렌터카 업체 3곳이 원희룡 제주지사를 상대로 제기한 차량 운행제한 공고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당초 소송에는 대기업 계열 렌터카 업체 5곳이 원고인단으로 참여했지만 (주)SK네트웍스, 에이제이렌터카(주) 등 2곳은 재판 도중 소송을 취하했다.

이들 업체는 지난해 5월 8일 제주도의 감차 요구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렌터카 운행 제한 명령을 받아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제주도는 운행제한 명령을 어길 때마다 1대당 10만원씩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었지만 수포로 돌아갔다. 반안 소송과 함께 제기된 운행제한 명령 정지 가처분 소송에서도 제주도가 졌기 때문이다.

운행 제한 소송 말고도 렌터카 총량제를 둘러싼 나머지 법적 다툼에서도 제주도는 번번이 졌다. 그동안 렌터카 총량제는 개정된 제주특별법에 따라 렌터카 수급 조

절 권한을 갖게 된 제주도가 적정 수요를 산정한 뒤 초과 대수만큼 감차하는 방식으로 이뤄져왔다. 제주도는 2017년 용역 결과를 토대로 3만2000대 수준의 렌터카를 2만5000대로 줄이기로 결정했다.

제주도는 개정된 제주특별법이 2018년 9월부터 시행된다는 소식을 접한 렌터카 업체가 그해 초부터 무더기로 증가를 신청하자 이를 반려했는데, 이때도 소송에 휘말려 패소했다. 법원은 제주특별법이 시행되기 전부터 증가를 반려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봤다.

잇따른 소송 여파로 렌터카 감차는 사실상 중단됐다. 제주도에 따르면 지난 2018년말부터 올해 11월까지 감차한 차량은 절반 수준인 3124대에 불과하다.

게다가 제주도는 렌터카 감차를 추진한 지 2년 만에 증가까지 고려한

수요 조사를 다시 벌일 계획이다. 렌터카 적정 대수를 산출하기 위한 용역 예산으로 5000만원을 편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도 관계자는 “코로나19 사태에도 개별 관광객이 제주를 꾸준히 방문하면서 업계와 관광객을 중심으로 ‘렌터카가 모자라다’는 민원이 빗발치고 있다”며 “지난 2017년 용역 당시와 비교해 교통·관광 여건이 많이 변했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2만5000대가 과연 적정 수준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수요 조사를 다시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용역 결과를 예단할 수 없지만 지금까지보다 더 증가해야 한다고 결론이 나온다고 수급조정위원회가 이를 받아들인다면 지금까지 감차에 동참했던 업체들에게 증가 우선권을 주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성민기자 hasm@ihalla.com

제주 종합부동산세 증가율 전국 최고

주택분 고지세액 492억... 전년비 244% 증가

제주지역 종합부동산세(이하 종합세) 증감률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국세청이 발표한 '2020년분 종합세 고지 현황'에 따르면 올해 전국 종합세 고지 인원은 74만4000명, 고지세액은 4조2687억원으로 각각 25.0%, 27.5% 증가했다.

제주지역 종합세 고지 인원은 8000명으로 전년(7000명)보다 14.3% 증가했으나, 고지세액은 911억원으로 전년(476억원) 대비 91.4%로 두배 가까이 급증했다.

시도별 종합세 고지세액 증가율은 제주가 전국에서 가장 높았으며, 세종(56.7%), 경남(38.5%), 대구(32.5%), 서울(30.9%), 충남(29.3%) 대전(28.6%), 광주(27.9%) 등이 뒤를 이었다.

주택분 종합세만 놓고 보면 제주지역 고지세액은 전년보다 3배 이상 폭등했다.

올해 전국 주택분 종합세 고지 인원은 66만7000명, 고지세액은 1조

8148억원으로 전년보다 각각 28.3%, 42.9% 증가했다.

제주지역의 경우 고지 인원은 5000명으로 전년 수준을 보였지만, 고지세액은 492억원으로 전년(143억원) 대비 244.1%나 급증했다.

시도별 주택분 종합세 고지세액 증가율은 제주가 압도적인 차이로 전국 1위를 기록했으며 대전(100.0%), 세종(63.0%), 경남(62.1%), 강원(44.6%), 서울(43.0%), 대구(42.6%) 등이 뒤를 이었다. 반면 울산의 주택분 종합세 고지세액은 63억원으로 전년(91억원)보다 30.8% 감소했다.

이같은 종합세 급증은 정부의 '공시가 현실화' 방침에 따라 매년 공시가를 큰 폭으로 올리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특히 내년에는 개인·법인의 주택분 세율을 인상하는 등 정부의 부동산 규제 정책으로 인해 종합세가 더 큰 폭으로 오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김현석기자 ik02@ihalla.com



수확 앞두고... 병충해 방제작업 25일 제주시 한경면 한 밭에서 농민들이 내달 초 수확 예정인 월동무 병충해 방제작업을 하고 있다. 이상국기자

9월 금융기관 여신 ↑·수신 ↓

지난 9월 제주지역 금융기관 여신은 증가했으나 수신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 제주본부가 25일 발표한 '9월중 금융기관 여·수신 동향'에 따르면 여신 잔액은 33조1675억원으로 전월비 1824억원 증가했다.

금융기관별로 보면 비은행금융기관(+529억원→+970억원)은 증가세가 지속됐으나 예금은행(8월 +3594억원→9월 +854억원)은 증가폭이 둔화했다.

제주지역 금융기관의 수신 잔액은 30조276억원으로 전월대비 3030억원 감소(8월말 증감액 -2982억원)했다. 고대로기자

주간 재테크 핫 이슈 외국인 투자자들의 움직임

내년부터 외국인 자금 유입 붐물 전망

코스피 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한 대형 반도체주가 신고가를 기록하면서 지수 상승을 이끄는 가운데 외국인 투자자들이 11월들어서 7조에 가까운 금액을 매수하면서 지수 상승을 이끌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국내는 코로나19 재확산이라는 악재가 다시 나타나고 시장이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 모습이다.

이번 코스피 신고점의 핵심 매수 주체는 외국인 투자자들이다. 외국인 투자자들의 경우 11월부터 IT, 화학, 금융 순으로 매수 우위를 보이며 매수세를 강화했으며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유동성 장세 이후에 실적 장세를 준비하는 길목에서 중장기적으로

히 지속되고 있으며 11월 20일까지만 하더라도 국내 수출 잠정치는 반도체, 자동차를 중심으로 전년 대비 11.1% 증가하는 등 이러한 기대감에 힘을 실어주는 수치가 나오고 있는 점도 고무적이다.

이와함께 올 한해 세계 경제에 최대악재로 작용하던 코로나19에 대해서 12월을 기점으로 백신의 긴급사용 승인 및 접종 시작 그리고 치료제 임상 종료 등 코로나 국면 해소에 대한 기대감 역시 연말에 집중 돼 있어 연말 증시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직까지 코로나19 백신과 치료제가 실질적인 효과를 보이거나 한 상황은 아니며 바이든 정부의 정책이 미국 경기 펀더멘털

코로나19 백신 긴급사용 승인·접종 긍정적 작용 미국 경기로 조정 가능성 높지만 폭 크지 않을 듯

외국인 투자자들의 자금 유입이 본격화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특히 이러한 자금 유입의 모습은 단순히 국내증시에만 미치는 것이 아닌 이머징 증시 전체적으로 자금이 유입되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여겨지고 있다. 11월 이후 이머징 주식형 펀드에만 약 120억달러 자금이 유입됐으며 달러 약세와 함께 원자재 강세로 인해 이머징 증시가 강세를 보이고 있다.

그리고 미국 대선 이후 트럼프 대통령 재임 기간중에 거의 와해됐던 메가머억협정이 최근 주요국들이 긍정적인 가입 의사 검토로 그 의미를 되찾게 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무역 주도권을 둘러싼 미중간 패권경쟁이 지속될 가능성은 높아졌다. 하지만 트럼프 정부 당시 격화됐던 관세전쟁과 함께 그에 따른 각자도생 시나리오 보다는 글로벌 밸류체인 의 재정립에 대한 기대감이 형성되고 있다.

하반기 이후 국내 수출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은 여전

에 가시적인 효과를 내기까지는 시간이 아직 다소 소요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러나 이러한 기대와 현실 사이에 괴리를 좁히기 위한 조정국면이 발생할 여지도 충분하지만 이러한 조정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수세가 이번엔 뚜렷하게 변화를 보인 것은 코로나19 백신을 통한 경기와 차기행정부의 정책에 따른 교역 정상화를 신흥국과 한국 증시에 투자의 중요한 잣대로 두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원화 강세가 지속되고 코로나19의 3차 확산이 내년에도 있을 실적 반등 기대를 크게 훼손하지 않는다면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수세가 갑자기 변화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현정우 유안타증권 금융센터 제주본부장

제주도정소식

코로나-19 등 지역사회 각종 재난 정보 수신을 위한 『제주 재난안전문자 서비스』 가입안내
- (온라인 신청) 제주특별자치도 재난안전대책본부(https://bangjae.jeju.go.kr)
- (현장방문 신청) 도청 민원실, 읍면동사무소 (문의: 010-6941710-3653-5)

2020년 「제주농업마이스터대학」 교육생 모집
최신 농업기술과 경영능력을 갖춘 전문농업경영인(마이스터)육성을 위해 운영하는 2020년 「제주농업마이스터대학」 제7기 교육생을 추가 모집합니다.

- * 교육일정과 내용은 상황에 따라 비대면 교육으로 변경될 수 있음
- ▷ 교육기간: 2021년 1월 ~ 2022년 12월(2년 과정)
- ▷ 교육장소: 제주대학교 캠퍼스, 농업기술원 캠퍼스
- ▷ 모집인원: 4개 전공별 24명 내외
 - 4개 전공: 친환경과수Ⅰ(감귤), 친환경과수Ⅱ(블루베리), 잡다래, 한우
- ▷ 선발방법: 서류심사 60%, 면접심사 40%(가산점 10% 이내)
- ▷ 신청기간: 2020. 11. 23. (월) ~ 2020. 12. 7. (월)
- ▷ 신청방법: 현장접수

제주 청년 희망드림 재년지원금 신청 안내

- 지원대상
 - 제주도 거주 중인 만19-34세 구직 미취업 청년
- 지원내용: 50만원
- * 12월말 일괄 지급 예정
- 신청방법(온라인): 제주도청 홈페이지
- 신청기간: 20. 11. 24-12. 7
- 문의: 제주고용센터(710-4464, 4606, 4608)

한라산국립공원 탐방예약제 안내

- 탐방예약제 운영 구간: 성판악․관음사 ~ 백록담 정상
- 1일 예약인원: 성판악코스 1,000명, 관음사코스 500명
- * 성판악 코스는 주차공간이 협소하므로 대중교통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운영기간: 2021. 1월~별도 공고 시까지
- 예약방법: 한라산예약시스템 (http://visithalla.jeu.go.kr)-전화(064-713-9953)
- 성명, 거주지역(시·도), 연락처 등 입력
- * 한라산예약시스템 홈페이지 및 대표전화는 2020년 12월 1일 오픈 예정
- 예약시기: 탐방할 기준 전월 1일부터 예약 할 수 있고, 단체는 1인 10명까지 예약 가능
- 예약 부도자 탐방제한 적용: 1회 3개월, 2회 1년 탐방제한
- * 탐방예약제 운영구간의 어리목·영실·몬내코 코스는 예약 없이 탐방 가능

문의: 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 ☎ 710-7813

성판악휴게소 공영 주차장 주변도로에 대한 불법주차차 단속 강화 안내

한라산 탐방예약제 시행 맞춰 내년 1월 1일부터 주차장 위반 시 과태료 부과

- 주차차금지 구간: 성판악 입구에서 제주시 방면 교래삼거리까지 4.5km, 서귀포시 방면 숲 터널 입구 1.5km까지 총 6km 구간
- 불법 주차차 위반 시: 승용·4톤 이하 화물차는 4만원, 승합·4톤 초과 화물은 5만원의 과태료 부과

문의: 교통정책과 ☎ 710-2462

서귀포시정소식

2021 동계 대학생아르바이트 모집 일일

- 신청기간: 2020. 12. 7(월) 09:00 ~ 12. 11(금) 18:00까지
- 신청자격: 서귀포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재(휴)학 대학생, 서귀포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시민의 자녀 중 재(휴)학 대학생
- 모집인원: 88명 / 희망근무지원 동지역(본청포함) 54명, 읍·면 34명
- 근무기간: 2021. 1. 4(월) ~ 1. 29(금) / 4주간
- * 근무부서 사정에 따라 근무기간은 변경될 수 있음
- 인건비: 1일 81,200원 / 시간당 10,150원
- 담당업무: 배치부서 특성에 맞는 현장업무 및 행정업무 지원
- 신청방법: 인터넷접수
 - 서귀포시 홈페이지 '부서별홈페이지 총무과/아르바이트모집/신청'
- 선발방법: 모집인원 초과 시 무작위 전산 추첨 - 희망근무지원 구분 추첨 - 12. 16(수) 14:00 / 서귀포시청 제1청사 분관 3층 셋방당
- 전산추첨 종료 직후 서귀포시 홈페이지 게시
- 문의전화: 서귀포시 총무과 ☎ 760-2065

2020 서귀포시 청일 아이디어 공모전 연장 모집

- 공모기간: 2020. 11. 9(월) ~ 12. 2(수)
- 공모자격: 공고일 현재 제주특별자치도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자 중 - 본 공모전 제출 아이디어를 가지고 서귀포시내에서 창업을 준비 중인 자 - 창업에 관심 있는 예비창업자 누구나(개인/팀), 학생 등)
- 공모주제: 서귀포시 지역 내 창업을 위한 다양한 정책 아이디어
- 응모방법: 온라인(zhener82@korea.kr) 및 우편접수
- 심사기준: 보유역량, 기술성, 사업성, 효과성
- 1차 심사: 서류심사 → 3개 팀(아이디어) 선정
- 2차 심사: 대면심사(PPT발표 10분, 질의응답 5분)
- 시상규모: 최우수상1(150만원), 우수상1(100만원), 장려상1(50만원)
- 문의사항: 서귀포시 경제일자리과 ☎ 760-2815

12월 「가족사랑의 날」 프로그램 모집 일일

- 모집기간: 2020. 11. 25(수) ~ 선착순
- 모집대상: 6세 이상 자녀 및 부모 50가족 100명
- 운영내용: 도넛과 초콜릿 만들기
- *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 비대면 프로그램으로 운영
- 신청방법: 전화접수
- 키트 수령 일시: 2020. 12. 2(수) / 16:00~19:00
- 키트 수령 장소: 서귀포시 건강가정지원센터 교육실 (서호남로 19-42)
- 접수 및 문의: 서귀포시 건강가정지원센터 ☎ 760-6487

의료안내

대한치과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제120323-중-3624호

동구치과 의원
DONGGU DENTAL CLINIC

일요일도 정상 진료합니다.

원장 신동구

중앙신협(신속) 2층 동구치과의원

제주대 제주중앙여고 제주지방병원

제주시 이도2동 2007-8 (중앙여고 입구 맞은편 중앙신협 2층)

☎ 756-2833